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5

Global Legal Insights Article

2023년 법조계의 떠오르는 ESG 주제 및 트렌드

Natalie Runyon - Director, ESG Content & Advisory Services / Thomson Reuters Institute

로펌은 ESG 영역에서의 업무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함정 또한 만연해 있습니다.

법률 조직에 대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요인의 영향력은 2022년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을 내다보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법조계에서 ESG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꼽은 내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 투명성

미국, 영국, 유럽연합 규제 당국의 보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급망의 다양성과 ESG 관련 중요 이슈의 투명성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Dentons의 글로벌 ESG 책임자인 **아라곤 세인트 찰스(Aragon St-Charles)**는 "로펌은 자신들이 다른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공급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미국 규제기관의 새로운 보고 규칙 제정과 2024년에 시행될 기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보고 의무 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업 법무 부서가 외부 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 티어 1,2 공급업체의 ESG 주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인 **JusticeBid**의 CEO인 **오마르 스위스(Omar Sweiss)**도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에 주목해야 할 분야는 로펌뿐만 아니라 법률 분야의 모든 공급업체가 자체 공급업체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라고 스위스는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공급업체 다양성 노력에 무관심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ESG 벤치마크, 득점표 및 프레임워크의 성장

법조계의 ESG 중요 이슈에 대한 집단적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업계를 위한 맞춤형 프레임워크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4개월 동안 수많은 외부 기관이 ESG 분야의 지표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impactvise**는 로펌 내부의 ESG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을 제공하며, '**기후책임 위한 로스쿨생들(Law Students for Climate Accountability)**'은 소송, 로비, 거래에서 기후와 관련된 로펌의 고객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성 연구소의 맨스필드 규칙**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ESG의 사회적 부분의 일부로 측정합니다.

3. 로펌의 법적 리스크 증가

고객들이 다국적 로펌에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 가치와 입장에 대해 ESG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세인트 찰스는 말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국적 로펌의 법치주의 및 대리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영국에 본사를 둔 로펌의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고객이 다른 국가에서도 프래킹 회사와 협력하는 것을 계약적으로 금지하는 조건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해당 로펌이 다른 관할권에서 그러한 고객과 협력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면 계약상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E"의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생물다양성

2021년 중반에 출범한 비영리 이니셔티브인 '넷 제로를 위한 변호사들(Lawyers for Net Zero)'의 최고 경영자 **아담 우드홀(Adam Woodhall)**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은 법률 부문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률 고문과 그 팀이 조직 내에서 기후 및 ESG에 대한 행동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일원인 세계 각국 정부는 **2022년 12월에 모여** 자연 손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행동을 이끌 새로운 목표에 합의했으며, 2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 서비스 업계 자문 그룹인 '**자연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2023년 가을에 최종 리스크 공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발언 압박 증가

로펌의 리더들은 뜨거운 이슈의 한쪽에 있는 직원, 고객, 정치인의 행동주의와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다른 고객 그룹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탄소중립 약속을 제정하는 등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급망 파트너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는 기업 고객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의회의 소수의 의원들이** 최근 일련의 서한을 통해 로펌에 화석 연료 제한을 위한 '담합적 노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로펌은 이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로펌의 가치에 따라 대응 여부, 시기, 방법 등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로펌 지속가능성 네트워크의 전 전무이사이자 보게이트 리걸ESG 임팩트(Vorgate Legal ESG Impact)의 파트너인 **가야트리 조시(Gayatri Joshi)**는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로펌이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기간 동안 직원이나 고객에게 이번 사태가 로펌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공개 성명이나 내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미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ESG 이슈는 다르지만,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고객의 ESG 전략, 정치, 이해관계자 간의 행동주의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2023년에 법률 조직에서 ESG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로펌은 성찰과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펌이 새로운 고객을 잃거나 유치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로펌이 스스로 집안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impact-vise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아드리안 페이어(Adrian Peyer)**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로펌의 ESG 성과는 '있으면 좋은 것'이었지만 2023년 이후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넷 제로를 위한 변호사들'의 우드홀도 이에 동의하며 법률고문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은 살기 좋은 지구이므로, 현명한 법률 고문과 그 팀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비즈니스와 사회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및 거버넌스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1월 18일

출처: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legal/esg-legal-trends-2023/>

토슨로이터 제품 관련 문의:

kr.legal-marketing@thomsonreuters.com